

최인욱의 『林巨正』 연구

최 미 진*

차 례

- | | |
|---------------------|-------------------|
| 1. 들머리 | 4. 의적 임꺽정과 희망의 논리 |
| 2. 역사소설 『林巨正』과 작가의식 | 5. 마무리 |
| 3. 에피소드식 구성 방식과 대중성 | 참고문헌 |

1. 들머리

최인욱은 1938년 《매일신보》에 단편소설 「시들은 마음」이 선외가작으로 입선되고, 다음해 같은 신문 신춘문예에 「산신령」이 가작으로 뽑혀 문단에 나섰다. 초기에는 「월화취적도」와 「개나리」, 「동자상」 등에서 보듯이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합일을 꾀하는 서정적 단편을 많이 발표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신문소설로 눈길을 돌리면서 주로 장편을 쓰기 시작하였다. 특히 1960년 갑오농민전쟁을 제재로 한 『초적』이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역사소설 쓰기에 힘썼다. 『林巨正』을 비롯하여 『만리장성』, 『태조 왕건』, 『女王』등 굵직굵직한 역사소설들을 내놓았는데,¹⁾ 지배층의 권력쟁탈 과정과 그로 인한 하층민의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1) 그가 창작한 역사소설은 다음과 같다. 『草笛』(《조선일보》, 1959. 11. 21~1961. 7. 20), 『林巨正』(《서울신문》, 1962. 10. 1~1965. 3. 30), 『萬里長城』(《서울신문》, 1965. 4. 1~1967. 7. 10), 『太祖 王建』(《경향신문》, 1967. 6. 6~1969. 4. 15),

고단한 삶의 내력과 고통에 주목한 바 크다. 그 중에서도 『林巨正』은 발표 당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던 대표작이라 할 만하다. 다른 작품과는 달리 이 소설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훗날 이동용 『소년소녀 임궽정』과 서림의 시각에서 다시 쓴 임궽정 이야기 『우림야화(雨林夜話)』를 세상에 내놓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최인옥의 『林巨正』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대략 《서울신문》에 게재된 몇몇 비평가들의 짧막한 논평이 있을 뿐이다.²⁾ 박종화는 최인옥을 충실한 역사적 고증과 소설적 허구를 잘 조화시킨 역량 있는 역사소설가로 보았으며, 역사학자 이상옥도 구체적인 사료,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경연일기(經筵日記)』·『기재잡기(耑齋雜記)』·『연려실기술(繚藜室記述)』 등의 역사 자료와 <대동여지도>를 참고하여 이조사회를 리얼하게 과해쳤다는 점을 들어 『林巨正』을 높이 평가하였다. 나아가 백철은 『林巨正』을 “역사에 비판을 가한 자기대로의 해석이 구축”된 “역사소설의 신품을 개척한 작품”으로 보았다. 김팔봉 또한 신문연재소설이라 하여 흥미 위주의 대중소설로 여겨 도매금으로 매도할 작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했다. 정비석은 『林巨正』이 “스케일로 보나 교양과 흥미로 보나 천하일품”으로 대중들의 독서를 적극 권장한다. 이러한 평가들을 종합할 때 『林巨正』은 평가자들의 무조건적인 상찬만이 아닌 역사소설의 요건을 두루 갖춘 손색이 없는 작품이라 볼 수 있겠다.

그렇지만 발표 당시의 평가와는 달리 『林巨正』을 뚜렷하게 자리매김하려는 연구자의 세심한 눈길을 찾아 볼 수 없는 형편이다. 김창식은 이를 흥명회가 쓴 『林巨正』의 연구가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는 최근의 연구 동향과 견주어, 쉬이 바로 잡기 어려운 문단의 편견과 관련시켜 연구의 편협성을 지적하고 재평가의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최인옥의 『林巨正』이 작가의 확고한 역사인식 아래 그만의 임궽정을 그리는 데 성공하였으며, 하층민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소년소설 임궽정』(『소년동아』, 1969~1971), 『女王』(《중앙일보》, 1969. 9. 22~1970. 12. 30), 『雨林夜話』(《경남신문》, 1969. 10. 19~1971. 7. 30), 『奎璋』(어문각, 1967), 『英雄 李舜臣』(울유문화사, 1969) 이외에도 편저로 『사명당전』(울유문화사, 1962)이 있다. 한원영, 『한국현대 신문연재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99와 김창식, 『대중문학을 넘어서』, 청동거울, 2000, 173~177쪽 참조.

2) 한원영, 위의 책(상권), 186~188쪽 참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양반층의 생활상이 밝혀지도록 하여 상하층을 인위적으로 연결하는 무리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김창식은 최인욱의 소설이 홍명희가 쓴 『임꺽정』의 문학적 성과와 견주어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³⁾ 그러나 김창식의 연구 또한 홍명희가 쓴 『임꺽정』과의 비교 연구에 주목함으로써 최인욱의 소설적 성과를 뚜렷하게 밝히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최인욱의 『林巨正』이 역사소설로서 어떠한 면모를 지니고 있으며, 아울러 대중적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고찰하는 데 소홀했던 셈이다. 이 글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최인욱의 『林巨正』⁴⁾을 대상으로 하여 역사소설의 대중적 성공 요인을 서사구조와 인물의 형상화 측면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1960년대 한국 역사소설의 담론을 주도했던 최인욱의 소설이 가지는 강점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2. 역사소설 『林巨正』과 작가의식

역사소설은 역사를 재구축하고 상상적으로 재창조하는 허구적 서사유형이다.⁵⁾ 역사소설은 역사와는 구분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역사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렇기에 소설의 인물이나 상황, 인식수준 등이 당대의 실제 현실과 얼마나 부합하는가가 언제나 큰 논쟁거리이다. 이렇듯 역사소설의 일차적 관건은 역사적 사실의 고증에 있다 하겠다.

역사소설은 '역사'에 주목하느냐 아니면 '소설'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다. 역사소설의 갈래짓기는 대개 역사와의 관련 정도와 독자들이 가지는 역사적 기대지평의 정도에 따라 이루어진다. 최근 공임순은 이러한 맥락에서 역사소설을 기록적, 가장적, 창안적, 환상적인 것으로 나눈다.⁶⁾ 기록

3) 김창식, 『최인욱의 『임꺽정』 연구』, 앞의 책.

4) 본고는 단행본으로 묶여진 최인욱의 『林巨正』 전 5권, 교학사, 1965년판울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하 인용문은 권과 쪽수만을 표기하기로 하겠다.

5) 한용환, 『소설학사전』, 고려원, 1992, 303쪽.

6) 공임순, 『우리 역사소설은 이론과 논쟁이 필요하다』, 책세상, 2000, 140~143쪽 참조.

적 역사소설이 공적 역사에 많은 부분 기대어 있다면, 환상적 역사소설은 공적 역사와 무관한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공적 역사에 좀더 치중한다면 가장적 역사소설로, 환상이 어느 정도 가미되어 있다면 창안적 역사소설이 된다. 역사소설은 공적 역사와 환상의 정도성에 따라 모호한 갈래짓기가 이뤄진다 하겠다. 환상적 역사소설을 제외한 역사소설 대부분은 역사적 사실과 어느 정도 관련된다. 따라서 역사적 사실의 고증은 창작자나 수용자 모두에게 일차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최인옥의 『林巨正』은 가장적 역사소설에 가깝다. 실제 인물 임꺽정의 행적이 시간 순서대로 형상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당대의 시대적 현실이 비교적 사실과 부합되기 때문이다.⁷⁾ 최인옥은 역사적 사료를 찾아 고증하는 일에 고심했던 소설가이다. 역사소설이 역사적 사실에서 취재하고 정확을 기해야 한다고 전제했으리만큼 역사의 고증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⁸⁾ 그렇다고 지나친 역사적 고증벽은 역사소설에서 절대 불가결하거나 불가피한 것은 물론 아니다.⁹⁾ 그는 역사소설이 공적 역사 따라잡기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점 또한 분명히 한다.

최인옥은 “사실의 충실과 그것의 나열만 가지고는 역사소설”일 수 없으며 “소설적 要件”이 더 중요한 자질이라 지적한다. 역사적 요건이 “객관적 사실에 대한 공정한 분석과 정확한 판단에 충실하는 것”이라면, 소설적 요건은 “객관적 사실 위에 세워지는 작가의 창조적 기능, 즉 작가의 지정신”이다. 역사소설의 특성상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과 작가의 창조적 상상력의 만남은 필연적이지만 결코 수월한 문제는 아니다. 역사적 사실에 치중하면 할수록, 작가의 상상력은 위축되고, 반면 작가가 소설적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면 역사적 사실을 충분

7) 임꺽정과 관련된 역사적 자료들은 다음을 참조했다. 임영택·강영주 편, 『벽초 홍명희와 『임꺽정』의 연구자료』, 사계절, 1996; 한창엽, 『林巨正의 서사와 패로디』, 국학자료원, 1997; 양주군·양주문화원, 『임꺽정·김삿갓 양주에서 태어났는가?』, 양주향토자료 총서 제3집, 2000. 본고의 목적이 작품에 드러난 역사적 사실의 검증에 있지 않기에 구체적인 언급은 생략한다.

8) 최인옥은 역사소설 집필과정에서 가장 곤혹스러웠던 것이 역사의 고증문제였다고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그만큼 그가 역사적 사실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의미한다. 최인옥, 『역사소설과 고증』, 『월간문학』 제17호, 1970년 3월; 최인옥, 『林巨正』 제5권, 교문사, 1965, 後記: 「끝을 맺게 될 『林巨正』」, 《서울신문》, 1965. 3. 13.

9) 박용구, 『역사소설입문』, 을유문화사, 1969, 45쪽.

히 반영하기 어렵다. 다르게 말하면 역사적 사실과 작가의 상상력 사이의 위험한 줄타기는, 역사소설가에게, “실지로 있는 사실을 통해서 있을 수 있는 세계를 찾아”낼 수 있는 역사가적 안목과 소설가적 역량을 함께 요구한다 하겠다.

루카치는 이러한 역사소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역사적 사실이 아닌 역사적 진실성에 오히려 주목한 바 있다. 역사소설이 과거의 역사를 현재의 전사로 의미화하지만 그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시대착오’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작가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역사적 과거를 변형할 수 있다. 변형은 과거가 현재의 전사로서 그 의미가 완전히 파악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물론 여기에는 필수적인 시대착오가 뒤따른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작가는 역사적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역사적 진실성은 “개인의 열정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러나 종종 그의 심리에 반하여 관철되는 이러한 거대한 역사적 필연성의 형상화에, 그리고 이 필연성을 민중생활의 실제적인 사회적·경제적 토대 위에 기초시키는 것”¹⁰⁾에 놓여 있다. 그렇기에 루카치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역사소설, 즉 역사적 진실성을 드러내는 역사소설은 역사적 충실성을 통해 역사적 필연성을 형상화해내고, 독자로 하여금 그것을 추체험하게 함으로써 허구를 진실로 이끌어내는 것이다.¹¹⁾

이 소설의 임찍정은, 당시의 역사를 통해서 만든 나의 임찍정이다. 임찍정은 反抗의인 인감입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역사의 기록에 나타난 그대로 暴力만을 믿은 反抗에 그치지 않는다. 나는 그가 어찌서 反抗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하는 그의 精神의 成長度를 탐구해서 그리고자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의 임찍정은, 당시의 역사를 통해서 본 나의 임찍정이란 말을 이해해 주는 독자가 있다면, 이 지루한 작업이 허무한 일이 아니란 생각을 하는 것이다.¹²⁾

최인옥은 『林巨正』을 두고 ‘나의 임찍정’을 형상화한 작품이라 주장한다. “당시의 역사를 통해서 만든 나의 임찍정”은 공적 역사에서 말하는 화적(火賊)도 “폭력만을 믿은 反抗”아도 아닌 나름의 이유를 가진 “반항적인 인간”이다.¹³⁾ 이

10) 게오르크 루카치, 이영옥 옮김, 『역사소설론』, 거름, 1987, 65쪽.

11) 송근호, 「루카치의 『역사소설론』과 역사소설의 문제」, 『다시읽는 역사문학』, 한국문학연구회 엮음, 평민사, 1995, 28~29쪽 참조.

12) 최인옥, 『林巨正』 제5권, 교문사, 1965, 後記 461~462쪽.

것은 역사적 인물 ‘임꺽정’과 ‘나의 임꺽정’이 변별됨을 의미한다. 작가는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자신만의 임꺽정을 새롭게 만들어나갔던 것이다. 따라서 ‘나의 임꺽정’ 아래에는 작가의 역사소설에 대한 열정과 고집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작가가 주체적인 역사적 안목과 시대의식을 갖추고 창작에 임했다는 점이다. 애초 신문사 측에서는 삼국지와 수호지를 얼버무린 혼합형의 작품을 요구했으나 작가가 굳이 ‘임꺽정’을 선택했다고 한다.¹⁴⁾ 1961년 김광주가 번안 소설 『정협지』로 큰 성공을 거둔 후 신문사측에서는 이와 유사한 무협소설로 신문소설의 성공을 기대했을 법하다.¹⁵⁾ 이러한 사측의 논리와 배리되는 작가의 선택은 역사소설에 대한 확고한 신념 없이는 불가능해 보인다. 중국 무협소설을 능가하는 한국 의적소설의 전통을 재조명해보겠다는 작가의 고집이 임꺽정을 선택하게 하였으며, 임꺽정을 통해서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드러내고자 했을 것이다. 아울러 왕조 중심의 역사소설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민중들의 고단한 삶을 소재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나름의 역사의식을 읽어 낼 수 있다. 이것은 ‘초적’과 함께 작가 특유의 역사적 접근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역사가 지배층의 전유물이 아님을 작가는 피지배층의 시각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하겠다.

소재 선택은 작품의 질을 판가름하는 기준이다. 작가가 명정한 시대의식 없이 대중의 취향을 좇아 손쉽고 흥미로운 소재만을 고집할 때 작가는 물론이고 대중들도 타성에 젖을 우려가 크다. 더욱이 문학을 통해 역사를 이야기하는 경우, 자칫 잘못하면 독자의 비판적 의식을 탈각화시키거나 역사인식을 그르칠 수 있어 소재를 선택하고 접근하는 남다른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역사소설가는 역사 상황이 제시하고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요소들과 변수들, 인간성을 심화된 안목으로 접근해야만 한다. 그럴 때 무엇이 위대하고 가치 있으며 또 잔혹한 것인가를 간파할 수 있는 것이다.¹⁶⁾ 이런 점에서 최인욱의 역사 접근 방

13) 이 점은 4장에서 임꺽정의 성격화의 특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14) 한원영, 앞의 책, 187쪽 참조.

15) 이치수, 「중국무협소설의 번역현황과 그 영향」과 육홍타, 「시장 측면에서 본 한국 무협소설의 역사」, 『무협소설이란 무엇인가』, 대중문학연구회, 예림기획, 2001, 73~75쪽과 122~123쪽 참조.

식은 가볍지 않고, 폭넓은 역사적 안목으로 단순한 재미를 넘어 시대정신을 꿰뚫고 있다 하겠다.

둘째, 작가는 역사적 진실성을 드러내는 독자적인 임궽정 서사를 펼쳐 보이 고자 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앞선 임궽정 소재 서사물의 단순한 반복이나 재생 산을 지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미 임궽정 이야기는 홍명희의 『林巨正傳』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었다. 광복 후 일반 독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임궽정 이야기는 의형제편과 화적편이 대부분이었지만,¹⁷⁾ 그것만으로도 임궽정 이야기를 향수하고자 하는 독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 최인옥이 이 시기에 홍명희의 『林巨正傳』을 대했을 가능성은 농후하나 금서로 분류되어 임궽정 이야기의 공적 소통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출판제도 안에서 광범위한 독자층을 형성하기에는 무리가 따랐을 법하다. 한국전쟁 후에도 임궽정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 여러 편 출간된 바 있다. 1956년에는 조영암이, 1961년에는 김용제와 허문녕이 각각 임궽정 이야기를 창작하였다.¹⁸⁾ 그러나 대부분 임궽정에 관한 역사적 사실의 누적이거나 재미있게 꾸며놓은 옛이야기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나만의 임궽정이란 말을 이해해 주는 독자가 있다면 이 지루한 작업이 허무한 일이 아니”라는 최인옥의 생각은 기존의 임궽정 서사가 노정환 이같은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겠다. 역사소설이 마땅히 “재관적 사실 위에 작가의 창조적 기능을 통한 새로운 세계의 건축”이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쳐 온 최인옥은 ‘그만의 임궽정’ 서사를 통해 기존의 임궽정 이야기와는 차별을 강화하면서 역사적 진실성을 드러내는 역사소설을 쓰고자 했던 것이다.

-
- 16) 이상선, 『역사와 문학과의 관계』, 『문학과 역사』, 이상선 편, 민음사, 1982, 39쪽 참조.
- 17) 홍명희의 『林巨正傳』은 봉단편, 피장편, 양반편, 의형제편, 화적편의 다섯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1930년대 말 조선일보사에서 전 8권으로 간행될 예정이었으나, 그 중 의형제편 상·하, 화적편 상·중의 4권만이 출간되었다. 해방후 을유문화사에서 다시 전 10권으로 간행 예정이었으나, 의형제편 1·2·3권, 화적편 1·2·3권이 출간되었을 뿐이다. 강영주, 『홍명희와 역사소설 『임궽정』』, 『한국근대리얼리즘작가연구』, 김윤식·정호웅 편, 문학과지성사, 1988, 101쪽 참조.
- 18) 조영암, 『新林巨正傳』(인간사, 1956) : 김용제, 『林巨正』(원진문화사, 1961) : 허문녕, 『巨盜 林巨正』(청산문화사, 1961) : 김창식, 앞의 글, 136쪽 참조.

셋째, 작가는 역사소설에 대한 독자들의 기대지평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두루 알다시피 역사소설은 창작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시대착오를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배경 시대와 창작 시대간의 끊임없는 대화적 산물이다. 『林巨正』이 그러한 결과물이라면, “나의 임궽정을 이해해주는 독자”의 문제는 이제 최인욱의 임궽정 담론이 얼마나 당대의 독자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가와 결부된다. 역사소설이 과거의 전사로서의 현재를 다룬다는 점에서 독자와의 의사소통은 상당 부분 당대의 사회 역사적 상황과 무관할 수 없다. 4·19혁명을 통해 다져진 민중의 주체적 역사의식의 고조와 이에 바탕한 역사인식의 일반적 진전은 역사소설에 대한 관심으로 모아질 수 있다.¹⁹⁾ 역사의식의 성장이 역사소설의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면, 역사소설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는 최인욱의 임궽정 담론이 소통되고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한 기반이다. 그래서 ‘나의 임궽정’을 이해해 주는 독자에 대한 기대지평은 당대 역사의식의 성숙과 맞물려 있다.

아울러 신문사의 상업화 전략에 힘입은 바 크다. 4·19혁명으로 언론자유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지만 5·16 군사쿠데타 이후에는 군부정권에 의해 기획되고 관리되었다. 군부정권은 비판적인 신문사에 대해 축소지향적 정책을 전개하는 한편 신문매체의 경쟁적 상업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였다.²⁰⁾ 때문에 신문사들은 생존전략으로 상업화 노선을 걸어야했고 그 일환으로 대중적인 신문소설을 선호했다. 특히 서울신문은 1954년 정비석의 『자유부인』으로 신문소설의 시장성을 충분히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인기 소설가 최인욱을 끌어들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자 했다. 최인욱 또한 전적으로 원고료에 의존해야 했던 상황이었고 보면 신문사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최인욱의 고민은 역사소설에 대한 자신의 입장만큼이나 독자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식의 탐구에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미 『초적』으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한 상황에서 대중들의 취향에만 영합하는 거짓 역사물로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했기 때문이다.

19) 반성완, 「루카치의 역사소설이론과 우리의 역사소설」, 『외국문학』 제3호, 1984년 겨울, 43~44쪽 참조.

20) 강상현, 「1960년대 한국언론의 특성과 그 변화」, 『1960년대 사회변화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백산서당, 1999, 179~181쪽 참조.

앞서 살핀대로 최인욱이 구축하고자 했던 “나의 임격정”은 역사소설에 대한 자신의 입장 정리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 문화적 담론 속에서 역사소설의 마땅한 자리를 찾기 위한 고민에 찬 흔적들과 뒤얽혀 있다. 문예지 소설과 달리 독자들의 반응이 판매 부수에 전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신문소설의 매체적 특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3. 에피소드식 구성 방식과 대중성

『林巨正』은 1962년 10월 1일부터 1965년 3월 30일까지 《서울신문》에 연재되었다. 연재가 끝난 후 상하 세로줄로 촘촘히 인쇄하여 총 5권의 소설집으로 출간하였다. 이처럼 상당한 분량의 역사소설은 독자가 호흡해낼 수 있는 독특한 소설적 장치를 요구한다. 대체로 역사소설은, 특히 왕조 중심이나 인물 중심의 역사소설은 일대기식 구성 방식을 취한다. 일대기식 구성 방식은 인물의 탄생, 성장, 죽음이라는 시간적 계기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시킨다. 다분히 왜색적인 구성방식으로, 주제를 반드시 과거에서 찾아내야만 하고 시간적 연관성만을 갖고 있는 상관없는 문제들을 배치시킨다.²¹⁾ 독자들에게는 친숙하지만 자칫 밋밋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방식이다. 홍명희의 『林巨正傳』이 봉단·피장·양반편은 편년체적 구성방식을, 의형제편은 기전체적 구성방식을, 그리고 화적편은 사건 중심의 구성 방식을 취해 구성 방식을 각각 달리한 이유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²²⁾

최인욱의 『林巨正』은 각 권과 장마다 다른 이름을 달고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는 에피소드식 구성 방식을 취한다. 일관된 사건을 중심으로 갈등의 전국면을 보여주기 보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결합하여 한 편의 큰 이야기를 구축해 가는 방식이다. 우선 대략적으로 이야기의 흐름을 살펴보자.

21) 로버트 솔즈·로버트 켈로그, 임병권 옮김, 『서사의 본질』, 예림, 2001, 276쪽 참조.

22) 강진호, 「역사소설과 『임격정』」, 『민족문학사강좌』 하권, 민족문학사연구소 엮음, 창작과비평사, 1995, 122쪽 참조.

제1권 「굴종과 반항편」에서 임꺽정은 최춘영, 박팔도, 서림 등과 녹림당 결성을 도모하던 중, 아버지의 죽음을 기회로 조참의를 죽이고 가족과 함께 청석골로 들어온다. 그는 고양 홍달이패를 규합한 후 평양 봉물짐을 털고, 안성 관현에 들어가 가짜 암행어사 노릇을 하며 재물을 털다. 박연폭포 구경을 갔던 임꺽정은 부사 첩실의 출처를 찾다 구룡산 도굴을 습격하여 신재복의 수하들을 영입한다.

제2권 「서도진출편」에서 신재 현령 이홍래가 토호 유우와 더불어 오연석 부대를 토벌하려 하자 오연석은 임꺽정과 한패가 되어 서도진출을 꾀한다. 관군과 싸우다 오연석이 죽자 이홍래는 유우의 공적을 치하하며 벼슬길을 열어주려 한다. 서림이 이를 역이용해 유우의 재산을 터는 한편 홍달이는 유씨녀의 도움을 받아 신진사의 봉물을 터는 데 성공한다. 재물을 처리하기 위해 임꺽정 일행은 서울로 가다 가짜 임꺽정패를 규합한다. 서울에서 임꺽정은 안생원택을 돕다 순실만을 구하고 승방에 숨는다. 그곳에서 중이 된 부사의 첩실은 서림의 첩이 되어 순실과 함께 약현마루 집에 기거한다.

제3권 「뇌물공채편」에서 사림과 김치백과 훈주과 이용재의 집안 싸움이 오도패를 모으게 되고 허육복의 부하를 구해낸 그들은 고석정에 터를 잡는다. 한편 임꺽정은 민가에 드나드는 호랑이 사냥을 끝내고 돌아오던 중 오도패와 결전을 치뤘다. 서울에 간 임꺽정은 채옥을 첩실로 들이나 서림이 투옥되자 뇌물을 써서 간신히 서림을 빼낸다. 서림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옥중친구 박가의 말대로 민대감 집 보물창고를 털어 청석골로 돌아온다.

제4권 「정관구민편」에서 임꺽정 일행은 봉산주막 아낙네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노생원을 혼내준다. 도둑 걱정을 하던 감사 신희복이 임꺽정과 선화당 회전을 가지나 뚜렷한 결론을 맺지 못한다. 이후 임꺽정 일당은 기군에 쩌든 백성을 구하기 위해 강을 조장을 털어 곡식을 나눠준다. 진봉산 봄놀이를 갔던 임꺽정 부하들이 장단 관가에 잡히자 임꺽정은 가짜 암행어사 노릇을 하여 그들을 구하고 부사의 재물을 털다. 다시 재령군수의 봉물을 털러 갔다가 서림이 은정마을의 독부를 만나 혼썰거당한다. 군수가 봉물과 함께 양전이를 서울로 데려가다 임꺽정 일당에게 모두 빼긴다. 임꺽정은 재물을 처리하러 곧장 서울로 간다.

제5권 「구월산향쟁편」에서 임꺽정 일당은 가뭄으로 힘든 백성들을 돕는 한편 봉산군수를 혼내려다 실패한다. 뒤이어 새 봉산군수를 혼내 내어 내쫓는다. 서울에서 임꺽정 부하들이 포청군사에게 잡히고, 그들의 습격을 받은 임꺽정 일행은 간신히 청석골로 돌아오나 임꺽정의 첩들은 고초를 당한다. 투옥된 아들 명복을 구하려고 임꺽정은 감사의 중형을 사칭하며 강음에 이어 평산, 서흥, 봉산 현령을 속인다. 피리를 잘 부는 왕족 단천령이 청석골에 잡혀왔다 풀려난다. 서림이 서울에 갔다가 포청군사들에게 잡힌 후 평산에 있던 임꺽정 일행이 관군의 습격을 받는다. 서림의 소식을 안 임꺽정은 산채를 구월산으로 옮기는 한편 박치서를 데려온다. 박장명이 투옥되자 임

격정 일행은 평산을 습격한다. 이에 토포사 남치군이 구월산 일대를 민간인으로 포위하자 임격정 일행은 가족을 피난시키는 한편 판관과 격돌하나 임격정은 죽고 만다.

이 소설에서 에피소드식 구성방식은 여러 개의 단속적인 에피소드가 커다란 연속적인 서사적 흐름으로 결집되는 방식을 취한다. 달리 말하면 중심적 서사가 단속적인 여러 사건들을 집중시키는 형식이다. 「굴종과 반항편」(1권)에서는 녹림당의 결성 과정을, 「서도진출편」(2권)·「뇌물공세편」(3권)·「징관구민편」(4권)에서는 녹림당의 세력 확장과 활약상을, 「구월산항쟁편」(5권)에서는 서림의 배신으로 녹림당이 해체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야기는 임격정이 주축이 되어 녹림당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소멸이라는 시간적 계기성에 따라 진행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에피소드식 구성방식이 가지는 소설적 효과는 무엇인가? 일반적인 에피소드식 구성방식의 특징을 이 소설에서 어떻게 살려내어 대중적 효과를 얻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서사의 현재성과 필진성을 최대한 살려내어 독자들이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추체험할 수 있게 한다. 중심적 서사가 커다란 긴장과 해결의 곡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 가지 사건들은 저마다 '동일하지만 다른' 반복을 통해 긴장과 해결의 국면을 보여 준다.²³⁾ 에피소드들마다 빠른 템포와 긴장을 유지함으로써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사건인 듯한 인상을 독자들에게 강하게 남긴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장황한 기술은 독자에게 역사소설이 화석화된 과거사의 재현이라는 인상을 남길 뿐, 현재로 호출된 생생한 과거를 경험하도록 이끌지는 못한다. 이 소설은 인물들간의 대화나 구체적인 사건 묘사가 서사를 구축하고,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들의 이력은 압축적으로 기술하거나 대화를 통해 요약적으로 제시한다. 서사가 역사적 사실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이를 주도해 나간다고 하겠다. 이로써 독자들에게 부수되는 대중적 효과는 크게 두가지이다.

첫째, 다양한 인물들의 성격화 과정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기 때문에 독자들은 여러 인물들의 성격과 인상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 녹림당의 구성원이 한

23) P. Brooks, *Reading for the Plot: Design and Intention in Narrative*, Harvard UP, 1984, 90~112쪽 참조.

두 명이 아니고 보면 인물들의 구성과 사건 전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보다 느슨한 플롯이 필요하다. 에피소드식 구성방식은 꼭 짜여진 플롯의 요구 사항들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도 자유롭고 완벽한 인물의 구성 전개를 허용한다.²⁴⁾ 청석골 살림꾼 최춘영, 현명한 해결사 이춘동, 불같은 성격의 흥달이, 천방지축 박천만, 배신자 서림 등 녹림당의 인물들은 여러 사건들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성격화 과정을 보여준다. 이처럼 에피소드식 구성방식은 극적인 사건의 전개를 크게 흐트리지 않으면서 인물 구성의 발전 과정과 결론을 자유롭게 이끌어낼 수 있다.

둘째, 사회 역사적 상황이나 풍속을 극적이면서도 구체적이게 다루어 독자들이 지루하지 않을 소설적 재미를 준다. 당시의 사회 역사적 상황은 소설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그러나 풍속의 묘사가 장황한 서술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독자들이 선뜻 다가서기 어렵다.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사회 제반 여건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면 이해하기 훨씬 수월해진다. 예를 들어 사림파 김치백과 훈구파 이용재의 집안 싸움은 당시 지배층의 삶과 생리뿐만 아니라 민중들의 고초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이다. 소가 농막을 짓밟은 사소한 사건이 집안 싸움으로 확대되면서 사림파와 훈구파간의 세력다툼으로 변질된다. 싸움이 지속될수록 양반의 위신과 체모는 여지없이 무너진다. 민중들은 이 싸움을 애초 재미있는 구경거리로 여겼으나 나중에는 잔치 음식을 감당해야 할 정도로 큰 부담을 느끼게 된다. 양반들의 어처구니없는 자존심 대결이 민중들의 삶을 어떻게 곤궁하게 만드는가를 보여준다. 민중들의 고단한 삶은 실제로 명종조 지배층의 권력 쟁탈에서 기인한 바 크다 할 것이다. 이처럼 구체적인 사건으로 다가서는 역사적 상황은 독자들에게 소설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읽는 재미를 가져다 준다.

다음으로 여러 가지 소설적 장치를 사용하여 독자들이 중심적 서사를 쉽게 이해하는 동시에 사건을 예견하는 재미를 준다. 작가는 회상이나 암시의 방식으로 분산적인 에피소드와 중심적 서사와의 간극을 메워 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체적인 이야기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이것은 단속적인 에피소드들이 커다란 서사적 흐름을 바탕에 두고 전개된다는 점을 독자들에게 끊임없이

24) 로버트 슐즈·로버트 켈로그, 임병권 옮김, 앞의 책, 307쪽 참조.

환기시키는 장치이다. 과거의 사건이 새로운 사건을 유발하기도 하기도 하고, 연이어 벌어질 사건에 대한 예전을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아울러 본래효과와 최근효과를 적절히 활용하여 독자들이 여러 에피소드들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본래효과는 독자가 보다 일찍 제공된 정보나 태도에 영향을 받아서 이후에 습득하는 다른 정보들을 항상 처음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최근효과는 독자에게 제시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을 최종적으로 조정하거나 통합하도록 한다.²⁵⁾ 예를 들면, 녹림당이 재물을 터는 여러 사건들은 처음 평양 봉물을 탈취하는 과정과 많은 부분 유사하다. 평양 봉물을 터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서림이 평양 봉물의 내막을 알다, (2)박팔도가 봉물 수송 여부와 진행상황을 염탐하다, (3)녹림당이 봉물을 털 장소를 물색하고 수송 방식을 결정하다, (4)봉물에 대한 경계를 늦추기 위한 계략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다, (5)봉물을 털다. 이 다섯 단계는 녹림당이 재물을 탈취하는 방식에 대한 본래효과를 결정한다. 독자들은 본래효과에 힘입어 녹림당이 도모하는 이후의 여러 사건들을 예측할 수 있으며, 그 진행과정의 차이성은 최근효과를 발휘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사건의 추이를 파악하고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독자들은 능동적인 독서행위의 즐거움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중심적 서사의 공백을 흥미진진한 부수적 서사로 재구성함으로써 독자들이 소설을 읽는 재미를 배가시킨다. 중심적 서사를 둘러싼 단속적인 에피소드들은 이야기의 일관된 흐름을 지연시키는 공백을 갖는다. 이것은 독자로 하여금 채워기를 지속시키는 역동성을 낳는 요인이기도 하다.²⁶⁾ 『林巨正』에서는 대부분 부수적 서사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한다. 녹림당의 종사 서림의 여성편력과 탐욕은 대표적인 부수적 서사이다. 여성 지위나 상황을 가리지 않는 서림의 여성 편력은 다양한 말재간에 힘입은 바 크다. 서림은 늘 녹림당이 재물을 탈취하는 긴박한 상황의 틈새에서 여성들을 눈여겨 보았다가 탐한다. '오과부'나 '온정마을 독부' 처럼 소설의 한 장을 차지할 정도로 분량이 많을 때도 있

25) 김중구, 「플롯론·서사구조론의 전개양상과 소설 서학」, 『현대소설 플롯의 서학』, 한국소설학회, 태학사, 1999, 26쪽 참조.

26) 김중구, 위의 글, 28쪽.

다. 서림의 여성 편력은 대중소설에서 제기되는 관능성의 문제와 직결된다. 대중소설의 관능성은 우리의 성행위라기 보다는 성에 관한 우리의 생각일 뿐이다.²⁷⁾ 그것은 강렬하고 극적인 체험으로 어떤 성적 체험 형식을 발견함으로써 단조롭게 통제되는 낭패스러운 성적 생활과 우리의 성적 환상의 모험적인 꿈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으려는 시도이다. 대중소설의 관능성을 통해 우리는 일상의 성적 문제들과 마주함과 동시에 그것의 금기와 배제의 논리에서 해방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²⁸⁾ 따라서 서림의 여성 편력은 역사소설의 상상력 이전에 인간의 욕망문제를 슬쩍 건드림으로써 독자들에게 이야기의 새로운 재미를 제공한다. 아울러 그의 여성편력은 대체로 녹림당의 정치나 거사를 앞둔 틈새에 벌어지기 때문에 독자들을 더욱 조바심나도록 만든다. 이렇듯 서사의 지연과 공백을 통해 중심적 서사가 지니고 있는 무거움을 덜어주는 한편 녹림당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를 마련한다. 그만큼 서림의 여성편력은 그의 탐욕과 함께 그 과정 자체의 재미뿐만 아니라 서림의 인물됨을 드러내는 소설적 장치이다. 녹림당을 파멸로 몰고가는 서림의 배신행위가 음욕과 탐욕에 기인한다는 사실은 반복되는 여성편력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문소설의 특성을 활용하여 독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는 데 효과적이다. 독자들은 방대한 양에다 일관된 서사적 흐름을 지닌 신문소설의 긴 호흡을 여간해서 따라 잡기 힘들다. 그러나 에피소드식 구성방식을 취할 경우 앞의 줄거리를 다 몰라도 세부적인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각 장마다 펼쳐지는 새로운 이야기들은 나름의 긴장과 해결의 구성을 따르고 있어 독자들에게 충분히 재미를 제공한다. 더욱이 『林巨正』과 같이 익숙한, 그래서 독자들이 과거의 독서 경험에 비추어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을 간파하고 있는 경우라면 다시 읽는, 그러나 새롭게 읽어낼 수 있는 재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에피소드식 구성방식은 흥미진진한 다양한 사건들을 만들어 독자들의 즐거운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앞서 살폈듯이 에피소드식 구성방식은 『林巨正』을 보다 새롭고 재미있게, 그

27) Stefan Morawski, *Inquiries into the Fundamentals of Aesthetics*, Cambridge & London : The MIT Press, 1978, 386쪽.

28) 박성봉, 『대중예술의 미학』, 동연, 1995, 334~339쪽 참조.

러면서도 이해하기 쉽도록 만드는 소설적 장치이다. 이 방식을 통해 최인옥은 역사소설의 무거움과 지리함을 덜어낼 수 있었으며, ‘나의 임꺽정’을 무리없이 그려낼 수 있었다 하겠다.

4. 의적 임꺽정과 희망의 논리

투카치에 따르면 역사소설의 주인공은 중도적인 인물이어야 한다. 중도적 인물의 설정은 ‘가장 중요한 극단적 인물들을 어떤 한 인물의 운명을 통해 교직하고 그래서 그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총체적 세계를 생생한 모습을 간직한 채 구축하는 문제’이다. 이를 통해 역사적 변화의 생동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민중들의 삶과 현실, 물적 토대를 자연스럽게 그려낼 수 있다. 민중의 대변자로서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도 이러한 바탕 위에서 등장하게 된다. 그만큼 중도적 인물을 설정하는 일은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이나 역사적 총체성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도적 인물을 구현한 역사소설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오히려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줄거리상의 중심 인물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林巨正』도 그러하거나 특히 역사소설에서는 영웅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를 도의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최인옥의 『林巨正』은 다른 임꺽정 이야기와는 달리 의적의 이미지가 크게 부각되어 있다. 녹림당이 벌이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백정 임꺽정이 진정한 의적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데 조력한다. 임꺽정과 마찬가지로 녹림당의 일원들은 대체로 평범한 민중의 삶을 포기당한 자들이다. 이들을 도적으로 나서게 만든 가장 뚜렷한 원인은 명종조의 혼탁한 정치 사회적 현실과 엄격한 신분제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임꺽정은 이러한 사회현실의 틈바구니 속에서 명분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도적 집단이 아니라 뚜렷한 저항의 명분을 지닌 의적 세력으로 성장하게 된다.

아버지는 굴종(屈從)밖에 모르는 불쌍한 노인이었다.

길에 가다가도 양반집의 코 흘리는 아이를 보면 「도련님, 도련님」하면서 허리를 굽신거리었고, 양반집 아이가 장난을 하다가 신발이 벗어져 길가에 떨어지면 그냥 지나지 않고 집어다가 두 손으로 바쳐 올리곤 하였다.

임꺽정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그러한 비굴한 태도가 싫었다. 아버지가 비굴한 짓을 할수록 임꺽정은 골목에 나가서 더욱 행패를 부렸다.(권1, 212 쪽)

임꺽정은 조선사회의 최하층민인 백정의 아들이다. 백정은 모든 계층으로부터 핍박과 팔시를 받았으며,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조차도 인정받을 수 없었던 계층이다. 임꺽정의 분노는 이러한 봉건제도의 모순과 마냥 “비굴한 태도”를 보이는 아버지의 삶에 기인한다. 양반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굽신거리며 굴종하는 아버지는 존경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거부하고 싶은 존재이다. 임꺽정에게는 마땅히 거부해야 할 미래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 때문에 임꺽정의 저항은 자신의 출신계급에 대한 거부이자 나아가 사회구조적 모순에 대한 거부의 의미를 지닌다. 신분제도가 없는 판 세상을 만들자는 최춘영의 제의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녹림당을 결성하는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논리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임꺽정은 녹림당을 일개 도둑의 무리가 아닌 “남의 의롭지 못한 재물을 뺏어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의적”의 세력으로 만들고자 한다. 의적이 되고자 했던 것은 임꺽정만의 생각이 아니다. 서출인 오연석이나 집안싸움에 휘말려 부득이하게 도둑이 된 오도패의 경우도 “불의에 반항하고 약자를 돕”는 일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었다. 특히 허유복은 도둑이면서도 갈 곳 없는 아이들의 뒤를 보살피 왔던 인물이다. 이처럼 의적 활동의 명분과 정당성은 한 개인의 자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대의 보편적인 삶의 체험에서 비롯된다고 보아야 하겠다. 혼란한 정치현실과 지배층의 학정, 타락한 행정관리와 빈곤의 심화 등 당대의 사회현실에서는 더 이상 기댈 곳도, 기대할 것도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방식, 즉 의적으로서의 삶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홉스보움에 기대한다면 임꺽정은 신사강도형 의적에 속하며, 의적의 행동양식과 많은 부분 닮아 있다.²⁹⁾ 그의 의적 활동은 부정의 희생자로서의 모습을 지닌

29) 홉스보움은 의적을 신사강도 또는 로빈후드형, 원초적인 저항전투자나 게릴라부대로서 하이더크형, 테러를 일으키는 복수자형으로 나눈다. 그리고 신사강도형

다. 양반의 횡포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조참의를 죽이는 행위는 그가 부정의 희생자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부모의 원수를 갚는 행위가 그를 범법자로 만들었고 결국 가족과 함께 청석골로 입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이후 녹림당을 이끌면서 의적으로서 일관된 행동 규칙을 만들어 나간다. 부유한 자에게서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 방어나 정당한 복수 외에는 살인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재물을 터는 외중에 지방 관헌의 부정(不正)을 바로 잡기도 한다. 가짜 암행어사 노릇을 하여 지방 관헌의 잘잘못을 낱낱이 파헤쳐 옥사에 갇힌 민중들을 풀어주는가 하면, 지방 관헌의 재물과 곡식을 민중들에게 되돌려주기도 한다. 아울러 관헌들이 도의시하는 민중들의 삶을 스스로 나서 보살피기도 한다. 민가에 드나드는 호랑이를 잡고, 가뭄이 극심할 때 물을 퍼주고 보를 내거나, 풍수해를 입었을 때 민중들의 의식주를 살피는 장면은 이를 반영한다. 이러한 행위는 민중들의 전체적인 연대감을 형성시키는 데 모자람이 없다. 더욱이 신출귀몰한 녹림당의 행적은 임척정에 대한 민중들의 주관적인 원망(願望)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많은 부분 녹림당의 세력확장과 서림의 지략에 힘입었지만 동서를 가리지 않고 관리들의 탐학을 징치하는 행위는 민중들의 기대를 충족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임척정의 저항은 기존 체제에 대한 전복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또는 양반들의 토색질과 지방 수령들의 탐학을 금할 수 있는지요? 작년은 황해도 일대가 황충(蝗蟲)이 들어서 농사를 그르쳤다가 올해는 약간

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①그가 무법자로서의 활동을 개시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정의 희생자로서이다. 민중은 관습상 범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당국이 범죄로 간주하는 어떤 행위 때문에 당국의 박해를 받는다. ②그는 부정을 광정한다. ③그는 부유한 자에게서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 ④그는 자기 방어나 정당한 복수를 하는 경우 외에는 살인하지 않는다. ⑤만일 살아 남으면 명예로운 시민 및 부락의 구성원으로서 민중에게 돌아간다. 실제로 그는 결코 부락을 떠난 것이 아니다. ⑥그는 민중의 칭송을 받고 원조받고 지지받는다. ⑦그는 예외없이 죽는다. 그것도 배반 때문에, 부락의 착실한 성원이라면 그에 적대하여 당국을 도와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⑧그들은-적어도 이론상으로는-모습을 나타내지 않는 불사신이다. ⑨그는 정의의 원천인 왕이나 황제의 적은 아니다. 다만 지방의 지주, 승려 기타 억압자의 적일 뿐이다. E. J. 홉스보름, 황의방 옮김, 『의적의 사회사』, 한길사, 1982, 13쪽. 46-49쪽 참조.

풍년이 들었다고 하지만, 풍년 기근에 우리는 이 백성들을 살도록 보호할 수 있는지요? 사또는 양반 특권층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농토를 농민들에게 고루 분배할 수 있는지요?」

임꺽정은 이런 요구 조건을 들이대고 나서 감사의 얼굴을 바라본 연후에 다시 말끝을 잇는다.

『사또께서 이런 요구만 들어 주신다면 우리도 두말 없이 농사나 짓고 살겠소. 세납은 농사 소출의 십분의 일을 바치겠소.』(권4, 123~124쪽)

인용문은 황해감사 신회복과 가진 선화당 회담 내용이다. 이 자리에서 임꺽정은 양반들의 토색질과 지방 수령들의 탐학 금지, 유자정전에 의한 토지분배와 적절한 세납 부과를 요구한다. 녹림당원들의 계층적 기반이 서로 다르고 삶의 방식 또한 다양하지만, 확실히 그들의 존재 기반은 평범한 농민으로서의 삶에 있다. 이것은 의적 활동의 대의가 민중들이 마음놓고 살만한 세상으로 돌아가는 데 있음을 의미한다. 단순히 농민들의 가난과 억압 자체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지나치게 가난하고 억압받는 상황을 타개하려 저항하는 셈이다. 임꺽정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무법 행위, 살인, 강탈 등으로 전통사회의 전통적 억압에 어떤 한계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는 세월이 언제나 평안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꿈꾸는 자일 뿐이다.³⁰⁾ 하지만 신회복은 임꺽정의 요구를 묵살하고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일에만 힘쓴다. 때문에 탐학한 지방관리들의 행태나 민중들의 고단한 삶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

임꺽정은 녹림당 통치 체제를 엄격하게 유지시킨다. 청석골은 녹림당의 본당으로 임꺽정을 최고 우두머리로 하고 그 아래 최춘영, 이춘동, 박팔도, 서림 등의 우두머리들이 부하 수백 명을 이끈다. 각 둔소들도 저마다 우두머리와 그들의 수하들로 이루어져 있다.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어느 사회 조직보다도 엄격하다. “첫째는 신의를 지켜야 하고, 둘째는 동료들끼리 화목해야 하고, 셋째는 명령을 어기지 못한다. 만약 이 규칙을 어길 때는 목숨을 바쳐야 한다.” 이것은 그들이 범법자로 쫓기는 처지에서 긴급한 사건들을 일사불란하게 처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 강령인 셈이다. 이러한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는 녹림당을 존속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장치이자 필요악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것은 녹림당이 봉건사회의 논리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30) E. J. 홉스보움, 진철승 옮김, 『원초적 반란』, 온누리, 1984, 39쪽 참조.

더욱이 녹림당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 제도를 완전히 떠날 수는 없다. 가령, 재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방원이나 한온같은 재주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데, 재주는 값비싼 재물 대신에 녹림당에 소용되는 양식과 상목 등 기본적인 생활물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녹림당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물질 토대를 재주들이 마련해준다 하겠다. 아울러 녹림당의 세력 유지와 확장을 위해서는 지방 관헌들이나 아전들, 그리고 민중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녹림당이 도모하는 일의 성공은 서울과 지방 행정체의 운영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임꺽정은 뇌물을 써서 그들의 세력을 곳곳에 형성하는데, 이것은 녹림당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발판이 된다.

의적으로서 확실한 입지를 확보하면 할수록 임꺽정은 더욱 더 가난한 자의 상징적 투사이면서 아울러 부자의 범주에 포함될 수도 있는 양면적 존재가 된다. 부자인 임꺽정이 첩살림으로 녹림당의 재물을 탕진하는 것은 녹림당의 붕괴를 가져오는 간접적 요인이 된다. 서림이 사리사욕을 채우겠다는 결심을 하는 이유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녹림당원들은 서림을 이미 “포청에서 문초가 심하면 무슨 말을 함부로 지껄일는지 모를” “입이 가벼운 사람”으로 여겨 왔다. 그의 배신은 아전 출신의 계급적 성향과 성격적 자질에서 연유하며, 재물을 챙기려다 포청관리에게 잡힘으로써 구체화된다. 서림의 배신은 결국 녹림당을 해체하고 임꺽정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직접적 원인인 것이다.

이상의 임꺽정의 행적들을 볼 때 최인욱의 『林巨正』은 임꺽정을 의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치중했다. 달리 말하면 ‘나의 임꺽정’은 현대적으로 각색된 의적 이야기인 셈이다. 이 점은 의적보다는 화적의 면모를 부각시켰던 홍명희의 『林巨正傳』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그렇다고 최인욱의 『林巨正』이 완벽한 의적으로서의 면모만을 가진 것은 아니다.

우선, 임꺽정은 신분제도의 모순을 지적하면서도 가부장적인 사회질서를 여전히 유지해야한다고 본다. 첩을 여럿 두는데, 그때마다 그의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그려진다. 못여인에게 관심이 없는 듯 행동하다가도 첩을 들이는 대목에서는 항상 본처를 문제삼아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 그는 본처를 “성미만 기승이고 알패일 뿐 아니라 여자로서의 도리도 몇대갈머리도 없”는 여인으로 규정한다. “여자로서의 미덕일 수 있는 부드러움”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고, “무엇

이 불만인지 늘 성난 것 같이 찌부듯하고, 무뚝뚝하고, 쌀쌀하고, 능히 좋게 할 수 있는 말도 시당의 소리같이 고탈을 뺀” 지르는 여인일 뿐이다. 본처의 이러한 특성은 임꺽정이 첩을 들이는 행위를 정당화시킨다. 월이나 채옥이 곱살스러울수록 본처는 한층 더 악녀로 부각된다. 더욱이 혼백과 결혼한 정체를 맞아 들이는 행위는 재가를 금지하는 사회제도에 대한 비판과 반항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듯 사회제도의 모순을 지적하면서도 가부장적인 사회질서,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사뭇 예외적인 태도를 보인다. 서림이 여인을 취하는 일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지만, 그의 행위가 그리 당해 보이지는 않는 것도 이러한 까닭이다.

그리고 종사 서림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임꺽정의 의적으로서의 면모는 그가 녹림당을 이끌어나가는 힘과 지략, 배포와 야량 등에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가짜 암행어사 노릇을 하거나 부사의 종형을 가장하고 활약하는 사건들을 제외하고는 찾아 보기 힘들다. 더욱이 도당을 이끄는 지도자적인 면모만큼이나 그의 불같은 성미와 고집 등이 끊임없이 환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들은 사건을 도모하고 실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임꺽정보다 서림의 능력과 역할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함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서림의 배신만으로도 녹림당 전체가 붕괴되고 임꺽정의 죽음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임꺽정의 이러한 허점들은 이야기를 더욱 현실감있게 만든다. 의적으로서 완벽하지 않다는 점은 그가 결점투성이인 못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는 인간임을 보여준다. 만약 임꺽정이 완벽한 의적의 면모만을 가졌다면 그는 오히려 신적인 존재이어야 한다. 그것은 신화가 그러하듯 민중들과 교감할 수 있는 현실성과 가능성을 가로막는다. 임꺽정이라는 의적이야기가 여러 시대를 거쳐 민중들에게 소통될 수 있는 것은 그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다.

의적 이야기는 “정의없는 곳에서도 살 수 있고 또 살지 않으면 안되지만 그러나 희망없이 살 수 없는” 민중의 희망을 투영한 무장 반란자의 이야기이다.³¹⁾ 의적에 관한 민중문화의 이미지는 단순한 미개사회생활에 관한 조사보고 이상의 것, 즉 문명사회에서는 이미 잃어버린 순진함과 모험에 대한 갈망이 있다. 녹림당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인 틀을 벗기면 거기에는 어떤 영속적인

31) E. J. 홉스보움, 황의방 옮김, 앞의 책, 187쪽.

감정과 역할이 남아있다. 자유, 영웅적 행위, 정의에 대한 꿈이 존재한다. 자유로운 동료관계, 권위에 대한 강인한 부정, 그리고 약한 자·학대받는 자·기만당한 자에 대한 옹호가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있는 것이다.³²⁾ 의적 이야기 『林巨正』을 대하는 현대의 독자들은 임궽정의 행위가 적법하지도 근대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적 이야기를 상상적으로 동일시하고 꿈꾼다. 더욱이 1960년대 당시의 억압적인 시대적 상황은 민중의 희망을 더욱 부채질했을 것이다. 군부정권은 4·19혁명에 담긴 민중들의 열망을 묵살하고 일어섰고 민중들은 이러한 정치사회현실에 대해 가지는 절망감과 막막함을 의적 이야기를 통해 상상적으로 해결하고자 했을 것이다. 정의와 부정, 자유와 억압, 평등과 차별 등의 경계가 모호해진 현실에서 민중들을 건디게 해주는 힘은 언젠가 임궽정과 같은 의적이 나타나 바로 잡아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며 민중들은 그 날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다. 실현불가능한 현실의 무게만큼이나 의적 이야기가 지닌 위안과 희망의 언어들은 독자들에게 더욱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다.

5. 마무리

1960년대 대중소설의 한 흐름을 주도했던 역사소설은 당시의 시대상황을 고발하고 비판하기 보다는 흥미본위로 치달는 수준미달의 역사소설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인옥은 흥미 추구에 앞서 뚜렷한 역사의식과 시대의식을 가지고 역사소설을 창작했던 몇 안되는 작가들 중 하나이다. 『林巨正』은 그러한 소설적 성과물이며,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최인옥의 『林巨正』은 정확한 역사적 고증과 작가의 소설적 상상력이 조화를 이룬 역사소설이었다. 작가는 『林巨正』을 두고 ‘나의 임궽정’이라 자부하는데, 그것은 우선 작품의 선택과정에서 형상화과정까지 줄곧 작가의 주체적인 역사의식과 시대의식이 작용하였음을 암시하였다. 아울러 역사적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독자적인 역사소설에 대한 작가의 열정과 고집의 표현이기도

32) E. J. 홉스보움, 황의방 옮김, 위의 책, 174~175쪽 참조.

하였다. 이와 함께 작가는 역사소설에 대한 독자의 기대지평 또한 간과하지 않았다. 1960년대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신문사의 경영전략, 작가 개인의 경제적 상황 등이 최인옥으로 하여금 역사소설의 독자문제를 염두해두게 만들었다. 신문소설의 생리와 작가의 역사소설에 대한 입장 사이의 간극들을 어떻게 메워나가는가 하는 것이 작가의 고심거리였음을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하였다.

역사소설 『林巨正』은 일대기식 구성방식보다 느슨한 에피소드식 구성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 구성방식을 이용하여 작가는 사건의 현재성과 팝진성을 최대한 살려내어 독자들이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추체험할 수 있게 하였다. 그것은 다양한 인물들의 성격화 과정을 사건을 통해 자연스럽게 제시하여 독자들이 여러 인물들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극적이고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 당시의 사회역사적 상황이나 풍속을 무리없이 드러내었다. 작가가 당시의 사회역사적 상황이나 민중들의 생활상을 설명할 때 독자들은 그 장황함에 자칫 지루함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적인 사건과 대화로 처리하여 당시의 상황을 독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다음으로 여러 가지 소설적 장치를 사용하여 독자들이 중심적 서사를 쉽게 이해하는 동시에 사건을 예견하는 재미를 가져다 주었다. 회상과 암시의 방식 뿐만 아니라 본래효과와 최근효과를 적극 활용하여 독자들이 소설을 쉽게 이해하고 또 새로운 사건을 예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 한편으로 중심적 서사의 공백을 흥미진진한 부수적 서사로 재구성함으로써 독자들이 소설을 읽는 재미를 배가시켰다. 대표적 부수적 서사는 서림의 여성편력과 탐욕 과정이다. 서림의 여성편력은 대중소설의 판능성과 직결되면서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데, 중심적 사건의 틈새에 위치함으로써 사건의 긴장감을 부추기는 데에도 일조하였다. 아울러 이것은 서림의 배신행위에 대한 필연성을 제공하는 서사적 장치로 읽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에피소드식 구성방식은 신문소설의 특성을 활용하여 독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이었다. 앞의 줄거리를 다 몰라도 매 사건의 긴장과 해결의 극선을 따라가는 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것은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임찍정 이야기를 새롭게 재구성하여 다시 읽는 재미를 가져다 주는 데에도 효과적이었다.

최인옥의 『林巨正』은 현대적이면서도 본격적인 의적 이야기였다. 과거의 임꺽정 이야기, 특히 흥명회의 『林巨正傳』이 의적보다는 화적이라는 입장에서 기술되었던 것과는 차별화된다. 최인옥의 『林巨正』은 임꺽정의 의적으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는 데 모든 사건과 인물들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백정인 임꺽정이 조선 사회의 불합리한 신분제도와 그 속에서 굴종만을 아는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청석골행을 결정한다. 그러나 그가 무법자가 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간 조참의를 죽이는 것 때문이다. 그 사건은 그 또한 부정의 희생자임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는 녹림당을 이끌면서 부자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자기방어가 아닌 이상 살인을 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엄격히 지켜나갔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에서 그는 부정을 바로잡는 존재였다. 타락한 정치현실 속에서 탐학한 지방관헌들과 양반들의 횡포를 광정하여 민중들에게 되돌려주거나 그들의 억울한 속사정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렇기에 민중들과 전체적인 연대감을 형성하여 녹림당을 유지하고 세력을 확장해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가 바라는 새로운 세상은 기존 체제에 대한 전복이 아니라 민중들이 마음놓고 살만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이것은 평범한 민중들의 고단한 삶이 녹림당을 만들고 유지시키게 한 원인임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임꺽정은 녹림당을 이끌면서 완벽한 의적으로서의 면모보다는 허점많은 인간으로서의 면모도 여실하게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것이 서림의 배신과 더불어 녹림당이 붕괴되고 그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 이상의 임꺽정이 가지는 의적으로서의 면모는 지배층보다는 민중들의 삶의 양식과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는 데 주목하고 있었다. 지배층과 민중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그리기 보다는 민중들의 삶을 통해서 당시의 사회상과 타락한 지배층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였다.

의적은 민중 속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그들의 꿈을 위해 싸우는 영웅이다. 지배계급으로부터의 부당한 피해를 깨닫고 모순된 질서를 비판하고 투쟁하는 민중인 것이다. 그러한 민중의식이 탄생시키고 투영되어 있는 것이 의적 이야기이다. 독자들은 이러한 의적 이야기를 통해서 잃어버린 순진함과 모험에 대한 갈망, 그리고 정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발표 당시 억눌린 사회전반의 분위기와 고질적인 경제적 위기는 독자들이 의적이야기를 통해 해갈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주었다. 작가는 이러한 시대적 정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민중의 시각에서 임꺽정을 의적다운 의적으로 변모시켜 놓았다. 임꺽정이라면 으레 의적으로 통하는 민중들의 인식에는 최인옥의 공이 없지 않다. 주체적인 역사의식과 시대의식으로 재창조된 그의 임꺽정은 현대문명 사회에 짓눌린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설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최인옥의 『林巨正』은 대중적인 역사소설이다. 그의 역사소설의 자장에는 루카치가 말한 역사소설의 조건이 두루 갖추어져 있지 않다. 중도적 인물도, 역사적 총체성도 그의 소설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그의 역사소설은 대중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서사적 장치와 그가 말하고자 하였던 역사에 대한 생각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역사는 지배층들만의 역사가 아니며 곳곳하게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내고 있는 민중들의 힘과 끈기의 역사이다. 그리고 『林巨正』은 역사적 위기에 민중들에게 희망의 논리로 다가섰던 역사소설이다. 이러한 점은 최인옥의 『林巨正』을 흥미본위의 역사소설이 지닌 한계를 뛰어 넘어 설 수 있게 한다.

참고문헌

- 강영주, 『한국역사소설의 재인식』, 창작과비평사, 1991.
 공임순, 『우리 역사소설은 이론과 논쟁이 필요하다』, 책세상, 2000.
 김윤식·정호용 편, 『한국근대리얼리즘작가연구』, 문학과지성사, 1988.
 김창식, 『대중문학을 넘어서』, 청동거울, 2000.
 대중문학연구회, 『무협소설이란 무엇인가』, 예림기획, 2001.
 민족문학사연구소 편, 『민족문학사강좌』, 창작과비평사, 1995.
 박성봉, 『대중예술의 미학』, 동연, 1995.
 박용구, 『역사소설입문』, 을유문화사, 1969.
 송백헌, 『한국근대역사소설연구』, 삼지원, 1985.
 양주군·양주문화원, 『임꺽정·김삿갓 양주에서 태어났는가?』, 양주향토자료총서 3집, 2000.

- 이상선 편, 『문학과 역사』, 민음사, 1982.
- 임영택·강영주 편, 『벽초 홍명희와 『입격정』의 연구자료』, 사계절, 1996.
- 장세진, 『한국대하역사소설연구』, 훈민, 1998.
- 장양수, 『한국의적소설사』, 문예출판사, 1995.
- 한국문학연구회 편, 『다시 읽는 역사문학』, 평민사, 1995.
- 한국소설학회, 『현대소설 플롯의 시학』, 태학사, 1999.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60년대 사회변화연구』, 백산서당, 1999.
- 한원영, 『한국현대신문연재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99.
- 한창엽, 『林巨正의 서사와 패로디』, 국학자료원, 1997.
- E. J. 홉스보움, 진철승 옮김, 『원초적 반란』, 은누리, 1984.
- E. J. 홉스보움, 황의방 옮김, 『의적의 사회사』, 한길사, 1982.
- P. Brooks, *Reading for the Plot : Design and Intention in Narrative*,
Harvard UP, 1984.
- 게오르그 루카치, 이영욱 옮김, 『역사소설론』, 거름, 1987.
- 로버트 솔즈·로버트 켈로그, 임병권 옮김, 『서사의 본질』, 예림기획, 2001.

<Abstract>

A Study on Choi In-Ook's "Im Ggeok-Jeong"

Choi, Mi-Jin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Choi's "Im Ggeok-Jeong" has gained popularity, even though it is a historical novel. The writer's imagination harmonizes with accurate historical researches in this novel. Choi In-Ook often calls it as 'my Im Ggeok-Jeong', because it is a product of his independent historical sense and the times' spirit. He describes that the people is the subject of history by setting up the life of governed class in his work, who lives in the disordered society. Besides the situation of its days, a managerial strategy of the newspaper publishing company and the writer's economical states make him be on his mind that his readers should be the people. The writer, Choi took lots of pains in order to show a true character of the historical novel and get into public favor. We can see it in his narrative method.

He gains some advantages by framing it an episodic framework. The first, he can satisfactorily describe how its people is characterized. He didn't epitomize and present many members of Noknimdang, but presented their characters in various episodes by themselves. The second, he also presented the social-historical situation of its days or the public morals in the dramatic and concrete affairs. Its framework can help the work to keep its novelistic tension by properly inserting historical factors of its days into its episodes. The third, it help readers easily to read a huge-scale historical novel. They are happy to read the novel, since he has made the well-known story of the 'Im Ggeok-Jeong' one of a fresh re-framework.

Choi makes "Im Ggeok-Jeong" a full-scale story of a benevolent robber

and modernizes it. A butcher of Im Ggeok-Jeong lifts his hand against a rank system of Joseon Dynasty society and decides to go into Cheongseokgol to make a new world. But he becomes an outlaw to seek vengeance after he sees his father's death with his own eyes. Paradoxically, a lawbreaker of Im Ggeok-Jeong attempts to correct illegalities and corruptions of the political-social world and the governing class. Including him, the members of Noknimdang take properties of rich persons by force and distribute it to the poor men. They don't murder anyone except attempts of their self-defence. They try to correct the tyranny of corruptive local-officials and Yangban(the nobility) and arrange the people's undeserved reasons. Therefore, it is natural that Noknimdang should become powerful, since they share a general solidarity with the people. But Im Ggeok-Jeong is a blinded person as well as a good benevolent robber. He lives with a concubine, exhausts Noknimdang's wealthy, makes mistakes by his emotions and depends too much on strategies of Seo Lim. At first, he simply thinks to make a new world that the people lives without anxiety, and not turn over the established system.

A benevolent robber of Im Ggeok-Jeong makes readers criticize the society, specially the corruptions of the governing class which is contrasted the mean life of the people. And then, it requires them to take fair views which the history is not only the governing class' but also the people's, and righteous actions. The story of Im Ggeok-Jeong gives readers the lost purity, a longing of adventure and a new dream for the righteousness. This novel had a greater popularity in its days, due to an oppressed mood of its society and an economic crisis. It is our all vision that common men lives in a simple and fair community. That is, the story of Im Ggeok-Jeong had a greater popularity due to the strength within the commonness.